

고군산군도 자연환경 · 관광자원 알린다

군산시,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 관광개발부문에 고군산군도 'K-관광섬 육성사업' 선정

신선이 노닐던 섬이자 CNN이 인정한 관광 명소 고군산군도에 해상 관광 활성화의 길을 또 다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군산시는 19일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TOPA) '2023 제1회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이하 관광정책대상)' 관광개발부문에 고군산군도 'K-관광섬 육성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가 추진하는 관광정책 어워드 사업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 관광정책사례를 발굴·선정해 이를 추진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을 수여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이번 수상자의 선정은 전문가 추천공모로 후보를 선정하고, 본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상대상으로 군산시 포함 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군산시는 19일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TOPA) '2023 제1회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 관광개발부문에 고군산군도 'K-관광섬 육성사업'이 선정됐다. (사진은 2023 제1회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 본심사 회의 모습)

본 시상에서는 관광개발(군산시 'K-관광섬 육성사업'), 생태관광자원(가평군 '북한강 천년 배길 조성 사업'), 문화관광자원(홍성군 '홍주읍성 복원 및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관광산업(경주시 '경제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사업'), 국민관광(강릉시 '강릉 무장에 관광도시 조성 사업') 등 총 5개의 정책부문에서 수상자가 선정됐다. 관광정책부문 'K-관광섬 육성사업' 수상에는 단체장의 정책비전, 시정목표, 세부 사업 선정 등에서 정책의 체계성과 적합성을 보여줬으며,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고군산군도 관련 사업 추진 부서 간 협업기구인 '고군산군도 행정실 무협체'를 통해 정책의 대응성과 적정성을 갖췄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K-관광 섬 육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휴양과 체험을 중시하는 여행 추세에 맞춰 저

밀도 청정 관광지인 섬을 대상으로 관광 콘텐츠와 K-컬처를 융합한 섬으로 특화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신규 공모사업으로, 지난 4월 전국에서 5개소(군산시 말도·명도·방축도)가 선정됐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관광정책대상을 통해 고군산군도의 특색있는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우수관광정책 사례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K-관광섬의 대표육성사업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섬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군산군도는 전혜의 자연경관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2023~2024년 한국관광 100선'과 'CNN이 지목한 아시아의 대표 관광 명소 18선'에 국내 유일하게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 6월 선유도 망주봉, 말도 습곡구조 등의 지질자원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되어 K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관곤 기자

익산시, 여름방학 보석문화체험 '풍성'

초등학생 대상 보석박물관 '키즈보석아카데미' · 마한박물관 '마한 보물 탐험대' 운영

보석도시 익산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보석문화체험을 선보인다. 국내 유일의 보석박물관에서는 초등학생을 위한 '2023 키즈보석아카데미'를 다음 달 2일, 3일, 9일, 10일 총 4회 운영한다. 키즈보석아카데미는 전국 참여율이 높은 보석박물관 대표 보석테마 교육프로그램이다. 수업은 △하여연구사와 '보석박물관 알아보기', △천연보석 감정 '신비한 보석이야기', △하리보 키즈주얼리, 자개보석함, Led를 이용한 보석테라리움 등 '보석·예술체험'과 교육수료식으로 이뤄진다. 참가 신청은 19일부터 보석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기수당 20명씩 총 80명을

모집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석박물관 홈페이지(www.jewelmuseum.go.kr)의 교육프로그램을 참고하거나 전시기획팀 전화(859-477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익산마한박물관에서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2023 어린이 박물관 학교, 마한 보물 탐험대'를 운영한다. '마한 보물 탐험대'는 마한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긴 '채', '금'·은보다 소중히 생각한 '옥'과 관련된 율동 탐구와 함께 △새 모양토기 만들기, △곱은옥 장신구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으로 이뤄진다. /익산=이재춘 기자

프로그램은 이틀씩 2기수로, 기수별 20명씩 모집하며 1기는 다음 달 1일과 2일, 2기는 3일과 4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이번 주부터 26일까지 선착순 접수로 마한박물관 홈페이지(www.iksan.go.kr/mahan)에서 신청방법을 참조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오감만족을 충족하는 이색 경험으로 익산의 보석과 예술,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교육의 장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노인회, 빛과 꽃을 피다 전' 개최

순창 옥천골 미술관에서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전시회

순창군 순창읍에 위치한 옥천골 미술관에서 오는 8월 10일까지 '노인회, 빛과 꽃을 피다 전(展)'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노인이 행복한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도강사 '진운이' 선생님을 비롯한 순창군지회 회원들이 만든 한지, 우산 등 생활에 밀접한 공예품을 통해 꽃과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감성을 전달할 예정이다. 19일 오프닝에 참석한 최영일 군수는 "이번 빛과 꽃을 피다 전(展)을 통해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애郷심으로 가득한 우리 어르신들이 그간 키워온 예술적 감각과 문화적 감성을 마음껏 뽐내시길 바란다"며 "7월 유례없는 긴 장마로 지친 군민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찾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회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대,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전주대학교는 오는 11월까지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각 학교에 찾아가 학생들에게 박물관을 직·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게 하는 무료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인간 생활의 바탕이 되는 '의(衣)·식(食)·주(住)'를 주제로 구성,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예코백 만들기, 토기복원 체험, 도장 새기기, 머그잔 만들기 등이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인문학적 사고발달에 기여하고, 박물관을 통해 문화유산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박현수 실장은 "농어촌 및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



는 박물관 운영을 통해 많은 학생이 박물관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려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찾아가는 박물관'은 도내 문화소외지역인 농어촌을 비롯한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모두 신청 가능하다. 참여 신청 및 문의는 전주대학교 박물관(063-220-2158~9)으로 하면 된다. /장은근 기자

'남원 옷칠 목공예품 전시회' 정부세종청사 행안부서 열려

남원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특화산업인 옷칠 목공예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중앙동 내 1층 로비에서 7월 17일부터 7월 19일 까지 3일간 개최됐으며, 남원 관내 작가들의 우수 작품과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역대 수상작 중 하이라이트 작품을 더해 18명 작가들의 특색있는 작품 27점이 선보였다. 남원시의 이번 전시 추진은 중앙부처 공직자들에게 찾아가는 적극 행정으로 지역 특화산업을 알리고, 옷칠 목공예산업의 계승·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의 필요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옷칠 목공예문화 선도도시로써 남원시를



홍보해, 올해 26회째를 맞아 최고상으로 국무총리상을 전수한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의 대통령상 격상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